

큰 미래를 열어주세요

전주는 도시 진입로부터 멋스러운 기와지붕을 얹은 한옥의 도시이다.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만큼 자연과 어우러지는 느긋함이 도시 안에 가득하다. 그 중 예외가 있다면 시민을 위한 물 행정의 바쁜 발걸음이다.

여유와 풍요로움을
맑은 물맛
전주시
상하수도사업소

‘맑은 물 공급 사업’으로 유수율 제고

켜켜이 쌓인 역사의 곁을 세어보자면 전주는 분명 오래된 도시이다. 그 속에는 후백제의 수도이자 조선왕조 500년을 꽃피운 역사의 중심지라는 오랜 전통이 숨 쉬고 있다. 하지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생동감 넘치는 행정을 펼치는 전주시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결코 오래되지 않은, 막 피어오르는 봄꽃의 싱싱한 생명력이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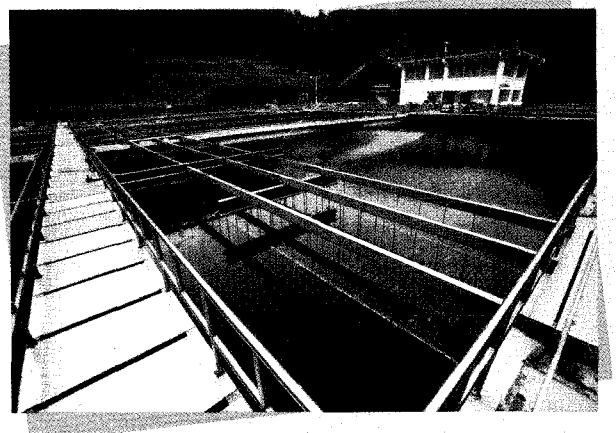
전주는 892년, 견훤이 스스로를 왕으로 칭하고 후백제를 건립한 곳으로 삼국사기에 전해지는 옛 지명은 완산(完山)이다. 완산은 ‘온전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로 예전부터 도시로서 흠잡을 데 없는 곳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훗날 전주라는 지명을 사용한 것은 서기 757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경덕왕 16년부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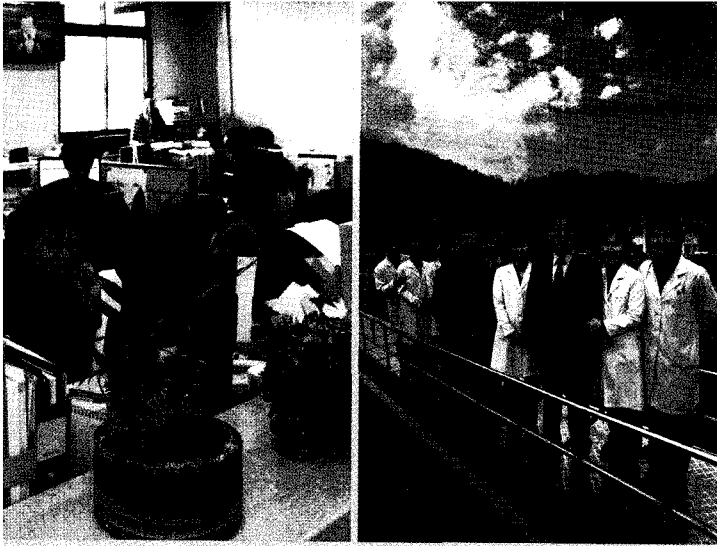
“인구 64만 명인 전주시의 수도 보급률은 99.2%로 높은 수준이지만 이에 비해 2008년 말 기준 유수율은 61.3%로 다소 낮은 편입니다. 도시가 오래되면서 노후관이 많아져 누수가 발생한 것이 원인입니다.”

전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김천환 소장은 유수율 제고를 위해 현재 5년간 1,436억원을 투입하는 대단위 프로젝트인 ‘맑은

물 공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 완료 시점인 2014년에는 유수율이 85%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 예상했다.

전주시 상하수도사업소의 물 공급 현황을 보면 광역수가 85%를 차지하고, 대성정수장에서 자체 생산하는 물이 약 15% 정도를 차지한다. 하지만 15%의 원수도 인근 완주군 상관면과 임실군 관촌면에서 취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지가 타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전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으며 원활히 물을 공급받도록 하기 위해 전주시 상하수도사업소 모든 직원들의 몸과 마음이 바쁘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송하진 전주시장님이
시정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작지만 가치 있는 친서민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100% 공급 및 철저한 수질관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신고하기 전에 미리 찾아서 해결하겠다는 신념이 바로 서비스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심뿐 아니라 도시 외곽 어디든 수도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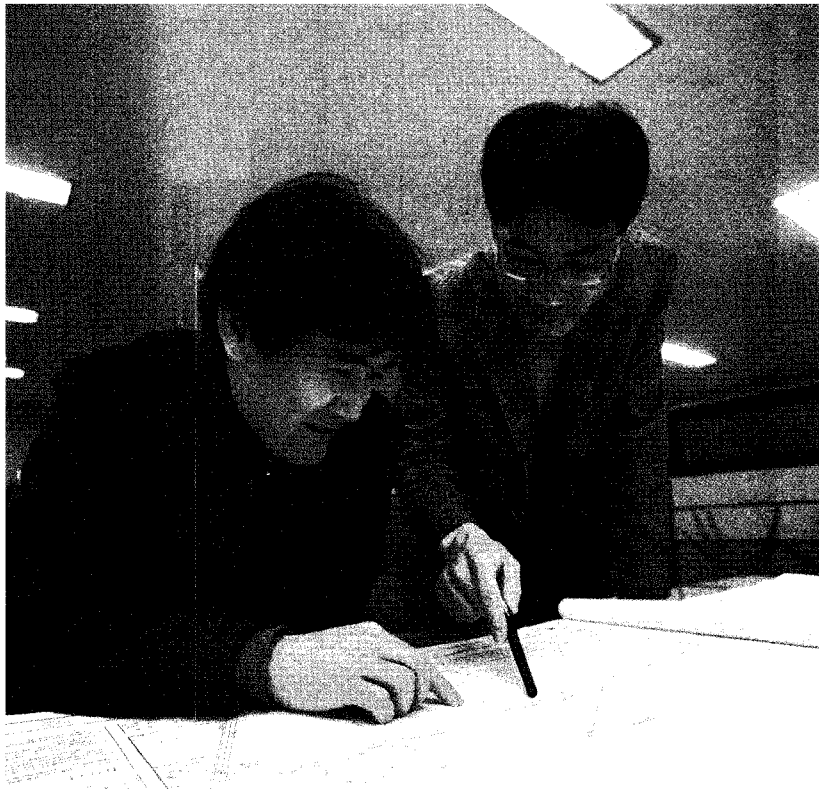
급수과 이학훈 과장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전주시 상하수도 사업소는 여러 불리한 조건들을 딛고 역량을 발휘해 2007년 환경부 주관 전국 정수장 운영관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어 2008년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능력평가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기도 했으며, 2009년에는 정수처리시설(슬러지 처리) 특허를 출원하는 등 맑은 물 생산을 위한 자체 기술 개발에도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수도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도물 품질 인증제>와 <수도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더이상 수도물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신뢰성 확보 사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 최병집 과장은 수도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 분야의 세계적 표준인 ISO 14001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전하며, 2000년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래 AQC(Analytical Quality Control : 측정분석 정도관리)에서 2년 연속 최고 점수인 100점을 받을 정도로 수질검사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성정수장에서 도내 유일한 수질검사기관을 운영하며 연



김천환 소장
전주시 상하수도사업소



3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이로써 1999년부터 추진해 온 '상수도 100% 공급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0년이면 전주시의 모든 시민들이 온전히 좋은 물을 만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의 편의를 생각하는 서비스 정신

전주시 상하수도사업소의 물에 대한 자신감은 소비자 모니터링 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지난 2008년에 70여 명의 모니터링 요원으로 운영되던 소비자 모니터링 제도는 2009년에 와서 200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고품질의 수도물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와 의사소통을 활발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전주시 상하수도사업소의 생각이다.

“민원인에게 친밀감을 갖고 가족과 이웃을 대하듯 한다면 응대하기가 더 쉽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민원도 더 많이 고민해서 방법을 찾게 되지요.”

수도행정과 황호준 과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여러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 신청 시간을 24시간 365일 시행하고 상수도 요금 연체 시 일괄 3% 부과하던 연체금을 납부일 기준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특히 그동안 교통국 소관으로 따로 존재했던 하수과가 조직 개편을 통해 전주시 상하수도사업소로 편입되면서 시민을 위한 하수 정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전주시의 하수도 보급률은 96.5%로 많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수처리장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환경보전 체험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25년간 하수도 분야에서 근무한 하수과 소재연 과장은 상하수도사업소의 일원화를 반기며 기존 하수도 시설 운영 관리와 신규 사업 시행 시 타 사업과의 연계 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깨끗한 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도록 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송하진 전주시장님이 시정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작지만 가치 있는 친서민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천환 소장은 사업소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바로 뛰며 해결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의 급수 공사 시 분할 납부를 지원하고 노후 주택 세대와 변방동 지하수 음용 세대에는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성정수장의 정수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하수처리장을 견학장으로 활용하여 친환경 학습장으로 조성하는 등 지역 주민과 상하수도사업소가 한층 더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 친서민 정책, 선진화된 수도정책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물’을 다루는 상하수도사업소도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내외적으로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친절을 최고의 실천 덕목으로 여기는 이곳 전주시 상하수도사업소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력은 전주의 또 다른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 ☺